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 개막...경제 회복·대만 다룰 듯

올 경제성장률 5% 수준 유지...첨단산업 발전·내수 진작 '방점'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앞두고 메시지 주목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개막했다. 국경절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2차회의는 4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2차회의는 5일 각각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개최한다.

작년 양회를 통해 '시진핑 3기'가 공식 출범한 만큼 올해 양회는 경제 회복 등 내정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인대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5일 개회식 후 있을 리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다. 여기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제정책 추진 방향, 국방 등 부문별 예산 계획이 제시된다.

중국은 작년 전인대에서 '5% 안팎'의 성장률을 목표로 설정했고, 올해 초 중국은 작년 한 해 성장률이 5.2%로 집계돼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 정부 부채, 국내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 등 전반적인 상황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면 기저효과가 있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 중국의 성장률이 4% 중반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경제 낙관론'을 정책 수준으로 끌어올린 만큼 양회를 통해 발표할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작년처럼 5% 수준일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하는 첨단 산업 발전 중심의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產力) 구호와 소비 장려 같은 내수 진작 조치 등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부동산 침체 상황 대응과 지방정부 부채 부담 완화 대책,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3대 신(新)성장동력'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도 강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양회를 계기로 중국 외교를 이끌 외교부장(외교장관)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작년 7월 '전랑(늑대전사) 외교'를 상징한 친강을 면직된 뒤 직전 외교부장이던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에게 외교부장 자리를 겸임하게 했다.

중화권 매체들은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등을 잇달아 접촉하며 활동 반경을 넓혀온 류젠차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차기 외교부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이 5월 취임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양회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미얀마 사태에 관심” 4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아세안-호주 특별 정상회의의 행사장 밖에서 자칭 미얀마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호주대표 등이 자국 정치 상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2021년 2월 1일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군부와 저항 세력 간 유혈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헤일리, 美 공화당 대선 경선 첫 승...대세 영향 미미

워싱턴DC서 트럼프 제쳐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3일(현지시간) 미국 수도에서 첫 승리를 거뒀지만, 대세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헤일리 전 대사는 지난 1일부터 이날 오후 7시까지 진행된 워싱턴DC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99%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62.8%를 득표해 트럼프 전 대통령(33.3%)을 이겼다.

지금까지 공화당 주별 경선에서 전부 패배했던 헤일리 전 대사의 첫 승리다.

워싱턴DC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92%를 득표할 정도로 진보 성향이 강한 도시라 헤일리 전 대사가 해볼 만하다는 관측이 있었다.

2016년 공화당 경선 때도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승리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워싱턴DC는 공화당 전체 대의원 2429명 가운데 19만만 할당돼 있고, 이날 투표에 참가한 사람도 약 2000명에 불과해 헤일리 전 대사의 이번 승

리가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 배분 방식은 득표율을 50%를 넘긴 후보가 있으면 승자 독식으로 19명의 대의원 전원을 가져가게 돼 헤일리 전 대사가 19명을 추가로 확보했다.

워싱턴DC의 인구는 약 70만명이지만 지난 1월 31일 기준으로 등록된 공화당원은 고작 약 2만3천명에 불과하다.

2016년 경선에도 2800명 정도만 참여하는 등 투표율이 낮은 편이라고 AP통신은 설명했다.

헤일리 전 대사가 소중한 승리를 얻긴 했지만, 고작 공화당원 2000여명이 참여한 경선을 이긴 것이라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뉴햄프셔, 사우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아이다호, 미주리에서 모두 승리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려면 대의원 121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244명을 확보했고, 헤일리 전 대사는 24명에 그쳤다. /연합뉴스

이스라엘-하마스 인질석방 협상 '난항'

“인질 명부 제출 등 요구에 응답없어 협상단 파견 않기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표단이 3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해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석방 협상을 재개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생존 인질 명부 제출 등 이스라엘의 핵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대표단 파견을 보류해 협상 진척이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하마스의 가자지구 2인자 칼릴 알하이아가 이끄는 협상단은 카이로에 도착했다.

이집트 관영 매체인 알카하라 뉴스는 현재 하마스 대표단 이외에 중재역을 맡은 미국과 카타르 대표단도 카이로에 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6주 휴전과 노약자·여성·병자 인질 석방을 포함하는 협상안을 내부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은 카이로 협상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익명의 이스라엘 관리는 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하마스는 생존한 인질 명단과 교환대상 보안 사범 수 등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오늘 대표단을 카이로

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스라엘이 지난 주말 살아있는 인질 명단과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하마스에 요구했으나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관리들에 따르면 하마스는 석방을 원하는 팔레스타인 포로가 누구인지, 인질 1명당 몇 명이 석방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에서는 협상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협상 참여를 일단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스 측에서는 이스라엘의 항구적 휴전 동의 없이는 인질 석방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하마스의 고위 소식통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와 피란민의 가자지구 북부 귀가 문제에서도 이견을 보인다면서 “월요일(4일)까지 협상 타결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전했다.

카이로 협상 소식에 정통한 다른 고위 외교 소식통도 “앞으로 48시간 안에 협상이 이뤄질 가능

성 없다”면서 협의를 지연시키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영구적 휴전이나 적어도 휴전에 이르는 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지 않을 것이며, 가자지구 북쪽과 남쪽 모두에 일정량의 원조 제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건도 하마스가 내걸었다고 밝혔다.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인 아야야 신와르가 중재를 감춘 것도 타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협상 관계자들은 신와르가 최소 일주일째 연락 두절 상태여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한다고 해도 합의를 이행해야 할 인물을 접촉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스라엘, 미국, 카타르, 이집트는 지난달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하마스에 6주간의 가자지구 휴전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수감자 교환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보안 사범 10명을 풀어주는 내용의 이 협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협상이 타결되면 이달 11일께 시작되는 이슬람 금식성월인 라마단과, 한 달 뒤 이어지는 명절인 이드 알 피트르까지 휴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